

**IFES**

# 뉴스레터

2024년 10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IFES



뉴스레터  
25호(10월)  
목차

## 연구활동

---

1. 학술활동	03
2. 교수 연구활동	08
3. IFES 브리프	13
4. Fellowship 사업	16
5. 한반도 정세 동향	18

## 연구소 소식

---

1. 언론 속의 IFES	28
2. IFES 도서관	29
3. 예정사항	32
4. 안내사항	33



# 연구활동

학술활동

교수 연구활동

IFES 브리프

Fellowship 사업

한반도 정세 동향





# 1. 학술활동

## 가. ‘중국연구센터-인아시아포럼’ 공동 추계 세미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센터장 이상만)은 9월 21일(토) 13:00 통일관 B102호에서 국내 한·중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중국연구센터-인아시아포럼’ 공동 추계 정기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김동찬 연세대 교수, 양상평(Yang Xiangfeng) 영남대 교수, 정재남 주 우한 총영사, 지성태 서울대 교수 등 국내 한·중관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여 4개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1주제 발표에서 김동찬 교수는 “개혁개방 전기(1978-2012)는 국가 운영핵심이 경제발전 위주로 집중되었고, 개혁개방 2기(2012-2-24 현재)는 국가안보 우선으로 전환되었다”고 강조, 제2주제로 양상평 영남대 교수는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자 중 누가 당선되어도 미국의 대중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대중국 압박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제3주제 발표에서 정재남 주 우한 총영사는 “동북공정은 중국의 장기적 동북정책으로 통일한국의 영토경계 담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북한이 중국을 극도로 경계하는 시점에서 동북공정이 시작됐다는 것이 주의해야할 점”이라고 강조, 마지막 제4주제에서 지성태 서울대 교수는 “한국이 ODA 통해 국가 이미지를 선양하고 있으며, 한국의 ODA지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따라 정부가 기업들과 컨소시엄(Consortium)을 통해 상대적 투자이익을 수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표를 마친 후 세미나에 참석한 한·중관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 1. 학술활동

### 나. 학술지(국·영문) 발간

#### 1) 『ASIAN PERSPECTIVE』 (VoL. 48, No. 3, SUMMER 2024) (2024. 9. 1.)



Asian Perspective는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로 다루는 전문학술지로 1977년에 창간되었다.

1988년 학술진흥재단(現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분야 최우수 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의 등재지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았다.

2019년부터는 새로운 공동출판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 존스 홉킨스대 출판부와 협력해 출판하고 있다.

#### Special Session on *China's Rise in Asia: China-Host Country Interactions and Transformations*

Guest Editors – Niall Duggan and Agnes Szunomar

#### Special Session Introduction—Strategies and Adaptations to China's Rise Across Asia

Victoria Chonn Ching, Guanle Lim, and Alvin Camba

#### The Relational Dynamics of China's Sharp Power and Korea's Chordal Triad of Agency

Youngjune Chung

#### Chinese Financing and Domestic Politics in Sri Lanka—Parallel Evolution across Mid-20<sup>th</sup> vs 21<sup>st</sup> Century Episodes of Bilateral Interactions

Umesh Moramudali and Thilina Panduwawala

#### Crafting Bhutan-China Ties: Small State Agency in Emergent Diplomatic Relations

Passang Dorji and Nicholas Thomas

#### The Clashes Within: How Do Thai Government Agencies and NGOs View China's Rise?

Narut Charoensri

#### Southeast Asi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Digital Rights in the Age of China's Digital Silk Road

Thomas P. Narins

#### BOOK SYMPOSIUM

#### Book Symposium on Dan Slater and Joseph Wong, 2022. *From Development to Democracy: The Transformations of Modern As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Ja Ian Chong

Kevin J. O'Brien

Myungji Yang

Dan Slater and Joseph Wong

## 『ASIAN PERSPECTIVE』 (VoL. 48, No. 3, SUMMER 주요 내용)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존스 홉킨스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하고 Project Muse (<https://muse.jhu.edu/issue/53079>)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Asian Perspective 제48권 3호(2024년 여름호)가 출간 되었다.

이번 특집호는 지난해의 특집호에 이어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부상: 중국과 수용국 간의 상호작용과 변화”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동 호의 논문들은 중국 힘의 복잡성과 한국, 스리랑카, 부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국가들에 대한 영향을 탐구했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들은 한국에서 중국 "샤프 파워"의 영향력과 한국의 대응; 스리랑카에서 중국의 역할과 스리랑카 지도자들이 선거 플랫폼을 형성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활용한 방법; 부탄이 중국의 의제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위해 어떻게 주체성을 발휘했는지; 중국 자금이 들어간 프로젝트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NGO 활동에도 불구하고 태국 관리들이 중국의 부상을 무역, 투자 및 경제 지원을 심화할 기회로 인식하는 방법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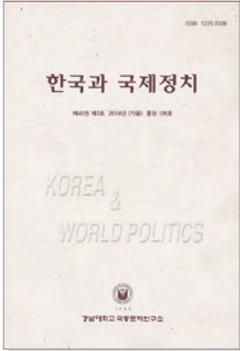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사회경제 발전의 가능성을 받아들였기에 가능했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확산을 탐구했다.

저널의 'Book 심포지움' 코너에서는 초청된 비평가들이 Dan Slater와 Joseph Wong이 '아시아 민주화의 불균등한 경험'을 비교 역사적으로 검토한 명저인 *From Development to Democracy: The Transformations of Modern Asia* (2022)에 대한 서평이 게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호를 포함한 본지의 모든 호(1977년부터 2024년까지)는 Project Mus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muse.jhu.edu/journal/733>)

## 1. 학술활동

### 2)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제3호 2024년 가을, 통권 126호) (2024.9. 30.)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매년 4회 발간되는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고 있다.

2004년 학술 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학문연구와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제40권 제3호, 2024년 (가을) 통권 126호 목차는 다음과 같다.

#### < 목차 >

- 한국전쟁기 한일 예비회담을 중심으로 본 한미관계와 이승만의 위협인식  
- 강여린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 무엇이 유권자의 정치적 감정을 흔드는가? 촛불시위 참여에 따른 정서적 양극화  
- 이세희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 한류 문화 경험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류는 과연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키는가?  
- 김택빈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국제질서 변화로 부상하는 방산 지정학과 K-방산 아키텍처 구상  
- 반길주 국제기구센터장/OGA 담당교수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 미·중 갈등은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약화시키는가?: 아세안 중심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유현석 교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한국과 국제정치』 (2024년 가을, 통권 126호) 주요 내용

**강여린 선임연구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을 맞이한 한국은 곧바로 냉전체제라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이러한 역사 배경 속에서 이승만의 위협인식이 한일 예비회담 정책에서 얼마나 적용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중 진행되었던 한일 예비회담 시기 한미 간의 위협인식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한미 양국은 같은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1951년 한일 예비회담 시기만이 아니라 현재, 미래의 한미일 관계를 고찰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세희 교수**는 최근 정서적 양극화 지수가 증가한 현상에 주목해 무엇이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고, 또한 시위에 주목하고 시위와 정서적 양극화의 관계를 분석했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주요 정당 지지자는 시위를 통한 감정적 자극으로 인해 선호 정당에 대한 호감은 증가하고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이 강해지는 정서적 양극화가 발생했다. 특히 이념 성향에 따라 촛불시위를 참여하지 않을 때보다 촛불시위를 참여할 때 정서적 양극화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택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류 문화 경험이 북한 주민들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인식, 자본주의 도입에 대한 인식, 탈북 동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한류 문화 경험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폭넓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성별, 연령, 소득수준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이러한 한류 경험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류 문화의 북한 내 확산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향후 북한 주민들의 남한 문화 수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반길주 센터장**은 K-Pop으로 시작된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K-방산이라는 하드파워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자강-기회 연계모델’을 제시하고 K-방산 기제 역할을 분석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K-방산전략 구체화 차원에서 ‘K-방산 아키텍처 구상’을 제시하고 더불어 K-방산 목표달성의 방법·수단 차원에서 ‘한국형 ODSA’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산 지정학 관련 후속연구의 필요성이라는 학문적 기여뿐 아니라 범정부 방산전략 수립, 제도화를 고려한 컨트롤타워 등 정책적 함의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교수**는 아세안 중심성을 미국과 지역 국가들의 선택의 결과로 이해해야 하며 아세안 중심성의 위기 역시도 이들 국가의 변화된 선택에 기인한다고 했다. 인도-태평양 질서는 이러한 차원의 아세안 중심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장으로 인한 아세안 중심성의 위기의 핵심은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이슈 중심의 다양한 소다자협력체의 등장이다. 아세안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새로 등장한 이슈 중심의 소다자협력체에 아세안 중심 협력 메커니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계를 가짐으로서 지역협력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2. 교수 연구활동

### 가. 중국식 현대화, 글로벌 발전에 새로운 모델 제공

(2024.9.13. 중국 국무원 사이트 칼럼 기고문: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 《 칼럼 기고문 》

현대화는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는 국가발전의 목표이다. 상이한 역사와 문화와 정치체제에 따라 각국이 추구하는 현대화는 각기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현대화를 통한 문명건설은 한 국가의 국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또한 모든 국가는 가용한 부존자원을 최적 배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국가 작용을 강화하기도 한다. 한 국가의 발전방향은 지도자의 의지와 정치체제의 공고함과 그리고 시장기제의 원활한 유기적 결합을 통해 현실화된다.

우리는 중국의 국가발전 양상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과는 다른 정치체제를 운영하는 국가이다.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작용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 사회주의 정치시스템을 견지하면서 점진적인 개방정책 실천을 통해 오늘날의 글로벌 일등 국가의 위치에 오른 유일한 국가이다. 중국의 영명한 지도자들은 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시스템 운용이 중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과감한 정책적 결정을 하였다. 이를 중국 연구자들은 제1차 개혁개방 추진으로 중국의 성공과 굴기가 가능한 기초를 잘 닦았다고 평가하고 해석하고 있다.

필자는 오늘날 중국이 글로벌 책임국가로 등장한 이면에는 교조주의를 타파한 사상해방과 기술향상, 국가지도자의 투철한 국가운영 의지, 인민들의 참고 인내하는 고난의 정신 수용이 가져온 결과이자 보상이라고 해석한다. 특히 고품격 생산력을 통한 기술향상으로 자본을 축적한다는 것은 시장기제를 잘 이용하여 기업과 인민들에게 부의 축적에 대한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국가의 정책들은 인민들을 바라보고 실천할 때 커다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국가정책은 설계와 실천이 중요하며, 실천을 통한 시행착오(先立后破)가 그 국가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중국 지도자들도 개혁개방을 심화시키기 위한 국가지도 이념, 목표와 과제, 주요 원칙을 시대에 따라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흑묘백묘-성자성사-선부론-3보전략-과학적발전관-중국몽 등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중국식 현대화' 과정이 착착 진행되었다. 이번 20기 3중전회에서도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가 이해하는 서구식 현대화는 물질적 현대화를 추구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관심을 보이지만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의 현대화와 인간의 현대화를 조화시키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현대화를 실현했다고 믿어지는 글로벌 사회의 주요 국가들 중 일부는 물질적 관점에서 경제는 매우 발달했지만 사회는 충분히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중국식 현대화'는 '인간중심의 현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첫째는 사회보장, 의료, 교육, 공공주택을 잘 공급하여 인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이는 정부의 책임이며 세금과 재정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공평성을 보장하는 2차 분배이다. 둘째는 기업가와 인민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사회에 더 잘 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즉 국가와 기업과 인민이 서로 협력하여 인간중심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중국식 현대화의 정수이고, 이것이 향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식 현대화가 폭 넓게 수용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또 중국은 아직 성장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필자는 20기 3중전회가 중국 현대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분석한다. 이 분석의 근거는 첫째는 20차 전국대표대회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및 기타 제도적 개방의 지속적 확대'를 추구하여 글로벌 사회의 선진 규칙 및 규제와 연계하려고 한다는 점, 둘째는 서방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해도 중국은 더 과감하게 자신있게 전 세계에게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점, 셋째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인 중국이 대외개방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는 비록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중국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가속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국제사회를 향해 표효 하고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개혁개방'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 나. 2020년 이후 김정은 정권의 반동사상문화 통제: 특징과 함의

(북한학보 제49집 1호 2024, 게재 논문 주요내용 요약: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 주요내용 요약 »

- 김정은 정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을 봉쇄함과 동시에 취한 조치가 반동사상문화에 대한 강력한 통제였다.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 북한 주민들의 행동양식과 언어를 단속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 이 글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해지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반동사상문화 통제 상황을 관련 법률과 실제 집행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주목해야 할 특징과 함의를 도출하면서 북한 정세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였다.
- 김정은 정권의 반동사상문화 통제의 특징에 대한 고찰은 북한 체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악화가 북한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적지 않은 시사점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한류의 유입을 청년들의 사상 이탈과 내부 결속력 약화라는 체제 유지의 중대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 그렇지만 김정은 체제가 반동사상문화 통제만으로 청년들의 외부문화 접근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 글에서는 강조한다.

### 다. 1970년대 초 한국의 자주국방정책 연구: “군비증강 대 동맹(Arms vs. Alliances)” 이론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30권 3호 2024년 가을호, 게재 논문 주요내용 요약: 정재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 주요내용 요약 »

-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초반 한국의 자주국방정책을 군비증강 대 동맹(arms vs alliances)이라는 동맹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1968년 1.21 청와대

무장공비 습격사건 이틀 후의 푸에블로 나포 사건 등으로 초래된 1968년의 안보 위기로 인해 자주국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2년이 지난 1970년대 초에 비로소 정책으로 추진되었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 본 연구에서는 군비증강 대 동맹(arms vs. alliances) 이론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 이 이론적 관점에 따르면, 당시 상황에서 동맹이 군비증강(자주국방)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었다. 즉, 한국정부가 자강(arms)의 정책보다 동맹정책을 우선시한 것은 당시 내부적 자원동원력의 부족으로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일련의 동맹 강화 노력(가령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APATO(아시아태평양 조약기구)와 같은 집단방위동맹 설립 추진, SEATO(동남아시아조약기구) 가입 추진 노력 등이 좌절되자 자강정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으며, 한국정부는 1970년대 초반 미국의 물적 지원 확보와 내부적 자원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이후 실질적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본 연구는 1970년대 한국정부의 자주국방정책과 1960년대 말 한미방위조약 개정 노력과 아시아 집단방위동맹 구상 등이 서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정책이 아니라, 1968년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적 연속선상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동맹이론에 근거, 규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라. 학술활동

### 김상범 교수

- 1) 공동 집필 도서 출간 (동국대학교 출판부 2024. 8. 29.)  
- 내용: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100문 100답』

###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 1) 2024 쿠키뉴스 산업포럼 참석 기초연설  
- 일자/장소: 2024. 9. 10.(화) /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 내용: “우리가 알던 미국 아냐... 변곡점 인식, 새 질서 맞춰 접근할 때”

## 2. 교수 연구활동

---

### 마. 언론활동

#### 임을출 교수

- 1) YTN '에디터픽' 출연 (2024. 9. 8. 일)  
- 내용: 공개처형까지...북한 MZ세대에 김정은이 내린 조치
- 2) YTN '뉴스퀘어10' 출연 (2024. 9. 9. 월)  
- 내용: 북한, 5일 연속 쓰레기 풍선 살포...9.9절 도발 나설까?
- 3) SBS뉴스 '딥백 모아보기' 출연 (2024. 9. 9. 월)  
- 내용: 21세기에 실화입니까? 홍수 나면 처형하고, 한국 드라마 보면 감옥 보내는 북한
- 4) KBS1 '9 뉴스' 인터뷰 (2024. 9. 12. 목)  
- 내용: 북한 수해 복구 박차...압록강 유역 곳곳 대규모 공사판 포착
- 5) YTN 출연 (2024. 9. 22. 일)  
- 내용: 전·현정권 '통일 담론' 충돌...쿼드, 북 핵개발 규탄
- 6)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2024. 9. 23. 월)  
- 내용: "쓰레기 풍선, 선 넘으면 군사적 조치" ...대화 사라진 '치킨 게임'

####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 1) YTN '6시 뉴스 [이슈플러스]' 출연 (2024. 9. 11. 수)  
- 내용: "해리스·트럼프 첫 TV 토론...치열한 공방전 승자는?"

#### 임형신 초빙교수

- 1) 한겨레신문 기고 (2024. 9. 10. 화)  
- 내용: "월미도에 생매장된 인민군 100명 발굴해 돌려줍니다."

# 3. IFES 브리프

## IFES 브리프(요약)

### 북한의 위험한 도박: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2024. 9. 19.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핵연구센터장)

북한이 로동신문(9.13)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개발 주요 인물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 홍승무를 대동하고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시설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시설은 영변이 아닌 그동안 한국, 미국, 일본 등 관련 정보당국이 오래전부터 비밀 핵시설로 지목해 온 평양 인근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헤커 박사 일행이 과거 영변을 찾았을 때 확인한 원심분리기 규모는 2천개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다수의 비밀시설에서 가동 중인 원심분리기 규모가 1만개에서 수만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술적으로 보면 1만개의 원심분리기로 연간 200kg의 HEU를 얻을 수 있다. 핵무기 1기를 만들기 위해 HEU 25kg가량이 필요하기에 북한은 연간 8기의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북한 우라늄 매장량과 품위(品位)와 관련,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하지만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과학자를 인용한 분석에 따르면 원광(原鑛) 매장량은 약 450만 톤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이 시점에 민감한 핵무기 농축 시설을 대담하게 공개한 것은 첫째, 한·미·일 3국을 상대로 '위험한 게임'을 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둘째, '영변 비핵화'를 실기(失機)한 미국과 향후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고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셋째, (대외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굳히겠다는 결의(자신감)를 보여주고, 동시에 (대내적으로) 핵보유국 위상을 높여 국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마지막으로, 핵무기 다중화·소형화·경량화 기틀을 한 단계 올려 대미 핵억제력을 강화하려는 현상유지(status quo) 전술과, 남한을 상대로 전술핵 능력 향상과 실전 배치 등을 통해 현상타파(revisionist) 전술을 병행적으로 펼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한미원자력협정이 한국 농축의 고질적 아킬레스건(Achilles' heel)이다. 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축 권리 확보는 '에너지 안보(독립)'과 직결되어 있다. 핵무기 개발로 공장 연결되는 고농축 방식이 아닌 (저)농축을 통한 헤징(bit-by-bit hedging)이 최적의 경로이다. 차제에 농축 문제를 한미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의제로 올려 '신(新) 원전동맹'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IFES 브리프(요약)

# 미국 대선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2024. 9. 19. 정재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前연합뉴스 논설위원)

제47대 미국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前대통령(공화당)이 11월 5일(현지시각) 격돌한다.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대선은 4년 주기로 진행되는 지구적 이벤트다.

미국은 50개 주별로 할당된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간선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다수 주는 우세 정당이 선거전부터 굳어졌다. 결국 美대선은 10개 미만의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s), 즉 경합주에서 결판난다. 이번 대선의 경합 주는 7곳이며, 이들 주에는 총 93명의 선거인단이 할당돼 있다. 북동부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역의 펜실베이니아(19명), 미시간(15명), 위스콘신(10명)과 남부 선벨트(Sun belt) 지역의 조지아(16명), 노스캐롤라이나(16명), 애리조나(11명), 네바다(6명)가 경합주다. 선거가 코앞이지만 판세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해리스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다소 앞서 있지만, 승부의 열쇠를 쥐는 7개 경합주는 여전히 초박빙 상태다.

승부의 열쇠를 쥐는 경합주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무리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이다.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이다. 해리스는 한미동맹, 미일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로 북·중·러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바이든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최대 현안인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확장 억제력과 우리의 재래식 전략을 결합해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동맹 네트워크보다 강대국 정치와 양자 협상을 중시하는 트럼프가 귀환하면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만일 트럼프가 북핵 동결 또는 감축과 대북경제 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북미 합의를 한다면 이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것이다. 한미동맹의 균열로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면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제공을 골자로 한 안보 공약을 준수하고 북한과의 일방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美대선은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결정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해리스와 트럼프 승리 시에 대비해 각각의 안보환경 시나리오를 분야별로 면밀하게 점검한 뒤 최적의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 IFES 브리프(요약)

## 자민단 총재 선거 결과와 이시바 新체제의 과제

(2024. 9. 30.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지난 9월 12일 총재 선거 고시 이후 9명의 후보자는 15일간의 선거전을 벌였다. 9월 27일 치러진 선거에서 예상대로 1차 투표에서 9명의 후보 가운데 아무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 상위 1, 2 후보에 의한 결선 투표가 치러졌다.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후보가 181표를 얻어 154표를 얻은 이시바 시게루 후보보다 27표 많아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가 다카이치를 누르고 5번의 도전 끝에 총재로 선출되었다.

이시바 시게루 新체제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핵기술의 이전”이 이뤄지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북한에 중국의 전략핵이 추가되면 지역에서의 미국의 확장억제는 기능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판 NATO 창설을 통해 “중국, 러시아 및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하며” “아시아판 NATO에서도 미국은 핵 공유나 핵의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위 문제 전문가답지 않게 이시바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핵 기술 이전과 같은 중대 문제에 관해 명확한 근거의 제시 없이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확장억제가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최근 한일관계가 개선된 것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미일의 다양한 회담의 정례화, 정보공유와 공동 훈련 등을 통해 “실질적인 ‘3자 동맹’에 가까운 형태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며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의 안보협력은 필요하지만, 이시바의 외교·안보 정책은 일본 국내는 물론 한미 양국에서도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9월 20일 중국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추가 모니터링에 합의하면서 중국은 일본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시바의 아시아판 NATO 창설 구상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집단안보 체제 구축을 염두에 둔 것이며, 지난 8월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의 일원으로 대만을 방문했던 이시바 의원이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라고 말하고, 라이칭더 총통과 회담했던 데 더해 중국이 대만을 핵심적 이익 중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시바 정권하의 중일 관계는 파란이 예상된다.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지만, 일본은 전후 80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시바 정권이 전후 80년을 어떻게 총괄하고 그 속에서 한일관계를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냉정하게 조사·분석해야 한다. 2012년 12월부터 10여 년 계속된 아베-스가-기시다 정권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시바 정권과 어떠한 관계를 구축해갈 것인지 준비해야 할 것이다.

## 4. Fellowship 사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펠로 6명(中판 빈빈, 中리아오 무춘, 美김연희, 中양향봉, 日호리야마 아키코, 日미야모토 사토루)을 대상으로 9월중 △GKF(국제한반도포럼) 참석 △1차례 특강 △펠로(판 빈빈) 최종 발표회 △2024 하반기 워크숍 등을 실시했다.

### 가. 2024 국제한반도 포럼(GKF) 참석

- 일시/장소: 2024. 9. 3.(화) 09:00~18:00 /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
- 참석자: 펠로 6명
- 주요내용: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주제로 통일부가 개최한 ‘2024 국제한반도포럼(GKF)’에 참석하여 북한-통일문제 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관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확장 기회를 가짐.

### 나. 제6차 특강

- 일시/장소: 2024. 9. 10.(화) 15:00 / 평화관 대회의실
- 강연자: 이신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사연구부장)
- 참석자: 펠로 6명, 김상범 주임교수, 실무진 등
- 주요내용: “북한의 베트남 전쟁 참전과 군사지원”을 주제로 △북한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배경 및 활동 △중전 이후 북한-베트남 관계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결과 등에 대해 강의한 후 폭넓은 질의응답 진행



< GKF 참석 >



< 제6차 특강 >

### 다. 펠로(中판 빈빈) 최종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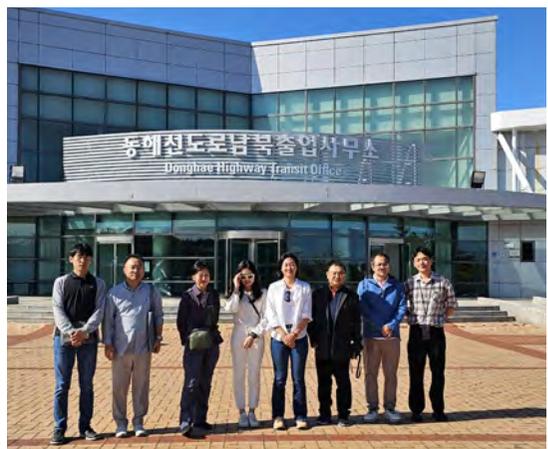
- 일시/장소: 2024. 9. 11.(수) 14:00 / 평화관 대회의실
- 참석자: 펠로 2명(中양향봉, 日호리아마 아키코), 김상범 주임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진 등
- 주요내용: 발표자 판 빈빈은 “중국의 대북 지경학적 실천: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를 주제로 펠로십 기간 동안 연구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발표 이후 연구소 교수진들의 다양한 코멘트를 반영하여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임.

### 라. 2024 하반기 워크숍

- 일자: 2024. 9. 24.(화) ~ 25.(수), 1박 2일
- 견학장소: 강원도 고성 및 철원 일대
- 참석자: 펠로 6명, 김상범 주임교수, 실무진 등
- 주요내용: 2024년 하반기 워크숍을 강원도 고성 및 철원지역에서 개최,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고성 통일전망대 △DMZ 박물관 △철원역사문화공원 등 접경지대 현장 답사를 통해 분단의 역사를 이해하고, 한반도평화 및 남북관계 상황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음.



< 펠로 최종발표회 >



< 하반기 워크숍 >

## 5. 한반도 정세 동향

### 가. '한일 정상회담(9.6.) 결과' 주요내용 및 국내·외 반응

#### 1) '한일 정상회담(9.6.) 결과' 주요내용

##### < '한일 정상회담(9.6.) 결과' 주요내용 >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오늘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측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의 발전과 한일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고,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도 한일 관계 발전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 출처: 대통령실 홈페이지 >

## 2)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내·외 반응

### < 국내전문가 반응 >

- 조성렬(경남대 초빙교수, 前오사카총영사)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 중에 난관이라고 했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한일 안보 협력을 구축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방한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차기 총리 선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회담 성과가 일본 국내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전망했다.(9.4. CBS노컷뉴스)
- 최은미(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간 기시다 총리는 방한을 앞두고 '퇴임하는 총리가 무슨 성과를 낼 수 있겠냐'는 압박을 받아왔을 텐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것은 평가할 만하다"라며 "과거사 문제 등 우리가 듣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평가했다.(9.7. 뉴스1)

### < 해외전문가 반응 >

- Yang Zhen(중국 상하이정법대학 동북아연구소 부소장): “한국은 기시다의 방문을 환영할 것인가?” (Global Times, 9.5)
  - 퇴임을 앞둔 기시다가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 첫째,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목적을 돕고자 하는 것. 둘째, 일본의 중국 견제 부담을 한국과 나누려는 것. 셋째, 재임 기간 동안 악화한 경제 대신 외교 성과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 결국, 이번 방문은 아직 67세 밖에 되지 않은 기시다 총리가 미래에 재선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고위험 도박을 행한 것임.
- Atlantic Council 연구진: “기시다 이후의 한일관계” (Atlantic Council, 9.6)
  - 기시다 이후의 한일관계는 차기 총리의 선택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현재의 긴밀한 관계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함. 차기 총리와 내각이 더 보수적인 성향이라면 한국과의 역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 만큼 유연하지 않을 수도 있음. 한국에서 진보 정당이 집권한다면 더욱 난항이 예상됨. (Ryo Hinata-Yamaguchi 인태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
  -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이유들(중국, 북한 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 기후위기 대응 등)은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할 것임. 따라서 미국이 3자 연례 회담을 공식화하거나 인적교류를 늘리는 등의 노력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 증진에서 힘써야 할 것임. (Lauren D. Gilbert 인태안보센터 부센터장)
- Rajaram Panda(前인도 네루 기념박물관 및 도서관 선임연구위원): “기시다-윤석열 회담 주요 내용 분석” (Eurasia Review, 9.9)
  - 기시다는 일본 국내에서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주요 성과로 우선시해 왔기에 이는 기시다 정권의 유산으로 기억될 것임.
  - 윤석열과 기시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최악이었던 한일관계 개선을 가능케 했던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설득이었음. 이번 회담이 차기 일본 총리에게 주는 의의는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도 한일관계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일 수 있으며, 북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불투명해질수록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일 수도 있음.

# 나. 북한·국제 정세 동향

## 북한

### “中, 김정은 ‘1호품’ 밀수 적발…‘돌려 달라’ 北측 요구에 거절했다.” (9.13. 중앙일보)

- 중국 당국이 다양한 밀수품에 더해 북한이 해상 밀수에 사용하는 쾌속정까지 압류했고, 이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용할 물품은 돌려 달라'는 북한 측의 요구도 거절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함.
- 특히 중국 해관 당국은 최근 유럽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향하는 밀수품을 압류했는데, 이 중 '김정은 전용품'도 포함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북 측이 "최고지도자(김정은) 동지가 사용할 물품이 있다"는 취지로 해당 물품이라도 돌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중국 측이 반환을 거부했다는 것임.

### ● 8.31. 김정은, 지방발전사업협의회 소집·지도 (9.2.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은 8.31.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소집해 '지방발전 20×10 정책'에 시·군병원, 과학기술 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 건설을 '3대 건설과제'(필수 3대 건설)로 추가할 것을 지시하고, 시·군 병원을 무조건 연내 완공할 것을 강조

### ● 9.8.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제5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및 제1차 핵협의그룹 모의연습 비난(9.9.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답화는 "미국의 핵위협공갈은 우리 국가의 보다 완비되고 향상된 자위적핵력량에 의하여 철저히 억제될것"이라고 언급

### ● 9.6. 김정은,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 시찰 등 군사분야 현지지도 (9.8.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 시찰) "훈련혁명과 군사교육혁명은 동시에 강력히 밀고나가야 할 강군건설의 2대전선"
- (해군기지건설 현지요해) "(북한은) 령토 동, 서에 바다를 끼고있는 해양국", "가까운 기간 내 현존 함선 계류시설 능력으로 수용할 수 없는 대형 수상·수중 함선들을 보유하게 된다"며, 최신형 대형 함선들을 운용할 현대화·다기능화된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을 강조
- (국방공업기업소 현지지도) 하반기도 무장장비 생산 실태를 요해하며, 군수생산 과학화·현대화, 무장장비 전투적 성능 담보 등을 강조
- (선박건조사업 현지지도) 여러 생산공정들과 배무이(건조)현장을 돌아보며 최근 진행한 선박건조공정 현대화사업을 요해. "해상주권을 굳건히 보위하고 전쟁준비를 다그치는데서 해군무력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

- 9.9. 북한 정권 수립일 기념 러·중 등 축전 계재 (9.9.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9.9. 김정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룡성변역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 제하' 정권 수립 76주년 연설 (9.10.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 '지방발전 20×10 정책', 시·군병원, 과학기술보급거점, 량곡관리시설 건설 등 3개 대상건설과 수해복구 등을 강조
  - "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일데 대한 핵무력건설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으며 공화국의 핵전투무력은 철통같은 지휘통제체계안에서 운용"하고 있다며, '책임적인 핵보유국'임을 주장
- 9.11. 김정은, 군 특수작전무력훈련기지 현지시찰, "현대전쟁 특수작전무력은 싸움마당의 기본전투무력" (9.13.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9.12. 김정은, 신형 600mm 방사포차 성능 검증 시험사격 참관 (9.13.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북한 매체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신형 600mm 방사포차를 개발생산했으며, 주행계통 발전과 완전자동화 검증에 목적을 두고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
- 9.13.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 공개 보도. 김정은 핵무기연구소 및 무기급핵물질 생산기지 현지지도, "전술핵무기제작에 필요한 핵물질생산에서 보다 높은 전망목표를 내세우고 총력을 집중" (9.13.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은 우라늄농축기지에 방문해 "핵병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기 위해 "원심분리기대수를 더 많이 늘이는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분리능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새형의 원심분리기도입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핵물질생산토대를 더한층 강화"하라고 지시
  - 북한 매체는 또한 '핵무기현행생산을 위해 능력확장을 진행하고있는 공사현장'을 김정은이 돌아보고 "설비조립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요해"했다고 보도
- 9.13.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담화, 유엔사 확대 관련 비난 (9.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제2차 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서울, 9.10.)와 공동성명에 대해 "유엔사 확대는 아태지역을 신냉전 구도로 밀어넣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의 전주곡"이라고 비난

## 5. 한반도 정세 동향

### ● 9.13. 김정은, 쇼이구 러시아 안전이사회 서기와 담화 (9.14.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담화에서는 “(러·북 간) 전략대화를 계속 심화시키며 호상안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협동을 강화해나가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정세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진행되었으며 상정된 문제들에 관해 만족한 견해일치”를 봄.
- 김정은은 앞으로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맞게 러시아와의 협력·협조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 확인

### ● 9.1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2차 전원회의 (9.16.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2차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소집 ▲사회주의물자교류법·공공건물관리법 심의채택 ▲도로교통법·대외경제중재법 수정보충안 심의채택 ▲평양·남포지구 국토건설총계획 수정안 심의승인 등 의안 상정 및 채택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는 10월 7일 소집 예정이며,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경공업법·대외경제법 심의채택 ▲품질감독법 집행검열감독 정형 관련 문제가 다뤄질 예정

### ● 최선희 외무상 방러 관련

- 9.17.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상과 담화. 러·북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라 쌍무관계를 각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시키며 국제무대에서 호상협력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한 의견을 교환 (9.20.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 9.18. 김정은,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및 개량형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등 지도 (9.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18. 미사일총국이 ‘설계상 4.5t급 초대형 상용탄두’ 장착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를 진행했고, 시험은 320km 목표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 확증에 목적이 있다고 보도
- 또한 통신은 전투적용 용도에 맞게 성능을 고도화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도 진행했다고 보도
- 김정은은 “핵무력을 계속 증강하는것과 함께 상용무기부문에서도 세계최강의 군사기술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
- 이날 김정은은 ‘국방과학원에서 연구개발한 7.62mm 저격수보총과 5.56mm 자동보총을 비롯한 여러종의 저격무기들도 살펴보며 앞으로의 생산방향과 공장의 생산기술토대 강화 관련 중요과업들을 제시

미국/일본

- 9.2. 일본 자민당 ‘자위대 헌법 명기’ 개헌 쟁점안 승인 (KBS, 9.2)
  - 헌법 9조 1항(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과 2항(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 유지한 채 자위대 조문을 신설 방안 제시
- 9.5. 한미 ‘핵 위협 시나리오 대응’ 첫 논의 (MBC, 9.5)
  -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 처음으로 ‘시나리오 기반 토의’ 실시
- 9.5. 미 국무부, 러시아가 북에서 컨테이너 만 6천 상자 탄약 받아 미사일 65발 우크라 공격 발표 (SBS, 9.5)
- 9.7. 한미, ‘핵협의그룹 모의연습(NCG TTS)’ 첫 개최 (KBS, 9.7)
  -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나 핵 사용 등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미가 이를 억제하고, 핵을 이용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협력 과정과 절차를 시뮬레이션으로 연습
- ‘쿼드’ 정상, 한반도 비핵화 목표 재확인…북러 군사협력 비판 (연합, 9.22)
  - 바이든 대통령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와 탄도미사일 발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
  - 역내 및 역외에서 북한 관련 핵과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 필요성 강조

중국/러시아

- 9.19. 우크라이나 드론에 러시아 군용 창고 폭발 (9.18. 중앙일보)
  - 모스크바 북서쪽 380km, 우크라이나군 보안·특수작전 부대의 드론 공습
  - 북한산 KN-23 탄도미사일 포함, S-300, S-400, 이스칸데르, 토치카-U 등 미사일과 포병용 탄약 보유 500억 무기고 파괴, 200t 수준 대규모 폭발
- 9.22. 시진핑 지난 9.9절 북한 국무위원장에 축전 (9.22. YTN)
  - 9.9.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축전에서 “계속 전략적높이와 장기적각도에서 중조관계를 보고 대할것”이라며 “전통적인 중조친선협조관계를 공동으로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면서 사회주의위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더 많은 복리를 마련해주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번영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 9.22. 중·러 연합훈련 (9.22. YTN)
  - 자국 견제를 공문화한 ‘쿼드 정상회의’에 대응 중국·러시아 연합훈련으로 동해 및 오후츠크해 일대 연합훈련 및 실전연습

### 다. 해외 전문가 논평

#### 《 일반 》

- Leon V. Sigal(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협력안보프로젝트 디렉터): “카멀라 해리스는 북한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The National Interest, 9.3)
  -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제재와 고립 정책으로 북한은 핵·미사일 무장을 강화하였으며, 미·중 간 강대국 외교를 포기하고 냉전 시절의 중·러 간 강대국 외교로 복귀하였음.
  -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 긴밀한 소통이 절실히 요구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려면 평화협정 등 미국의 대북정책이 수정되어야만 할 것임.
- Joshua Kurlantzick(미국 외교위원회 선임연구원): “트럼프와 해리스의 토론에서 아시아-중국 관련 내용이 없었고, 이는 안 좋은 소식” (CFR, 9.11)
  - 최근 토론회에서 양당 후보는 미국의 대(對)아시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데 실패
  - 가장 중요한 사안인 미중관계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음. 이 외에도 남중국해, 미국-인도관계, 쿼드, 북한, 대만 등의 다른 이슈들도 배제
  - 과거 대선에는 여러 번의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외교 문제에만 집중하는 토론회도 있었던 반면, 이번 대선은 추가 토론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간담회 주요 발언: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가 아닌 새로운 접근법 필요(Pivotal States: No Choice but Crisis? The Next President's Options for North Korea, 9.20)
  - Jenny town(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은 유용하지 않으며, 기존의 휴전협정이나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같은 한반도 관리 방식의 전면 재검토 필요
  - Markus Garlauskas(애슬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남북통일과 북한의 비핵화도 중요한 목표지만 아직 먼 미래의 일이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
  - Ankit Panda(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기가 여러나라로 확산될 위험 증가하고 있음. 한편,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스스로를 위대한 강대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 공개 관련 》

■ Siegfried S. Hecker(미들베리연구소 교수), Robert Carlin(미들베리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의 농축 능력 심층 분석과 그 의의” (38 North, 9.18)

- 방송을 통해 공개된 시설은 2010년 11월 방문 당시 봤던 것과 차이 존재. 가장 큰 차이점은 최근 영상에서는 원심분리기로 연결되는 더 많은 소형 파이프들이 보인다는 것임. 그러나 현재로서 북한의 농축 능력을 단정 짓는 것은 선부름.
- 북핵의 근본적 위협에 변화는 없겠지만, 그 위력의 대단함은 여전함. 이번 영상 공개를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어쩌면 일본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 탄두 생산 가능성을 드러낸 것. 김정은은 처음부터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보다는 전술핵을 통한 근거리 공격 능력 확보를 우선 원할 것임. 최근 경제 정책에 방점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핵 능력 증진 지속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분석됨.

■ Sydney Seiler(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 “북, 핵실험 등 대규모 도발 미국 새 대통령 취임 후 할 것” (CSIS, 9.19)

- 이번 농축시설 사진 공개는 이임하는 행정부를 처벌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4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도발하는 것임.
- 북한이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새 행정부가 실제 자리 잡기까지 기다릴 것. 따라서, 7차 핵실험 같은 대규모 도발은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뤄질 것이고,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는 그런 도발 가능성을 교묘하게 암시하는 수단임.
- 한편, 북한이 2019년 미국과 협상 결렬 이후 핵 역량의 질적·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으며 앞으로도 북핵을 제한하려는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북핵 프로그램이 김정은이 생각하는 종착점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으며, 미국이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시설이 공개된 것은 아님

■ Katrin Katz(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 “‘10월의 서프라이즈’가 7차 핵실험일 가능성은 낮아” (CSIS, 9.19)

- 북한의 핵실험이 분명 중국을 불편하게 할 것이며 러시아와 관계도 악화할 가능성이 있음. 러시아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에서 받은 지원이 끊기는 것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중국이 다시 제재 협조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번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는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핵 역량을 과시하는 절충안으로 봐야 할 것



---

# 연구소 소식

언론 속의 IFES

IFES 도서관

예정사항

안내사항



# 1. 언론 속의 IFES

## ■ 『IFES 브리프』 인용 보도 (2024. 9. 20.)

(서울: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 기자 =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가운데 북한의 우라늄 농축 역량이 앞으로 더욱 향상될 잠재력이 크다는 한국 내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moky@rfa.org



<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

### < 보도내용 요약 >

## “북, 우라늄 농축 역량 더욱 향상 시킬 가능성”

- 한국의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19일 “북한의 위험한 도박: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라는 제하의 보고서(『IFES 브리프』)를 통해 북한이 최근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의 원심분리기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며, 북한이 향후 우라늄 농축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함.
- 이병철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여분의 원심분리기를 의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며 “북한은 (향후) 이번엔 공개한 것보다 더 큰 원심분리기 개량형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고 언급
- 또한 북한이 원심분리기 회전자(rotor)에 최첨단 소재인 탄산섬유 등 복합 재료를 사용하면 크기의 개량 없이도 ... 향상시킬 것으로 관측

기사원문:[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rok-experts-see-great-potention-forn-north-korean-uranium-rnrichment-capabilities-to-improve-going-forward-09202024095536.html/ampRFA](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rok-experts-see-great-potention-forn-north-korean-uranium-rnrichment-capabilities-to-improve-going-forward-09202024095536.html/ampRFA)

## 2. IFES 도서관

### 가. 추천도서



제 목: 김정은 정권의 지도이념 변천

저 자: 히라이 히사시

출간일: 2023년 8월 16일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쪽 수: 211쪽

북한은 사상의 국가이며, 전통(tradition)과 안보(security)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통은 항일 무장투쟁과 한국전쟁의 경험을 핵심 인자로 구성된 북한의 지도사상을 말한다. 또한 전통은 사상의 안정성을 통해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자 메카니즘이다. 북한의 전통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자료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로동신문을 오랜 시간 연속선상에서 읽고, 분석해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학계의 현실을 담겨져 있다. 연구자들에게도 어렵고 지루한 작업을 연구자가 아닌 북한을 오래 취재한 일본 교도통신 히라이 히사시 기자가 대신했다. 이 책을 정독한 후 나의 소감은 “오랜만에 북한 정치 분야 책 다운 책을 봤다”는 것이었다.

저자는 교도통신에서 서울지국장을 역임한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언론인이다. 그는 2002년 선양 일본총영사관 탈북민 진입사건을 보도해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현실을 알렸던 기자로도 유명하다. 그는 10년 동안 로동신문, 조선중앙TV, 민주조선을 종합, 분석해 “김정은 정권의 지도이념 변천”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북한의 지도이념의 변화 과정에 대해 날짜와 주요 내용까지 소개하며 배경, 내용, 의미를 명확히 분석했다는 점이다. 또한 로동신문 상에서 소개되지 않은 내용들을 조선중앙TV, 민주조선과 교차 분석해 학문적 공백을 메웠다는 점도 매우 인상적이다. 또 다른 장점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는 북한 자료의 탐독과 분석으로 인해 기존 학계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명

## 2. IFES 도서관

---

확히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김일성-김정일주의 라는 용어는 김정은 위원장의 2012년 소위 4.6담화에서 최초로 제기된 것인가? 우리국가제일주의라는 용어는 2017년 11월 29일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하며 최초로 제기된 것인가?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수령이라는 북한 최고의 존엄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 등이다.

이 질문에 대해 그는 조선중앙TV와 김정일의 기록영화 분석을 통해 2011년 7월 13일 김정일 총비서가 조선인민군 963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부대안에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자!”라는 구호를 쓴 간판을 소개하였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4.6담화에서 오래 전부터 당과 인민들이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을 결부시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부르며 이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인정해왔다고 발언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국가제일주의도 2017년 11월 20일 ‘신심드높이 질풍노도처럼 나가자’의 제하에서 로동신문 정론에서 핵과 미사일이 아니라 경제건설에 매진하는 국가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최초로 제기되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2021년 5월 14일자 ‘인민의 심부름꾼당’이라는 제하의 로동신문 정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최초로 수령으로 표기했음을 밝혔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북한은 과거의 역사를 현 시점에서 재해석하는 소위 ‘역사의 현재화’ 작업을 통해 지도사상의 정당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역사적 사실의 오류와 그로 인한 분석의 문제점이 있다면 관련 역사는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폐쇄적 권위주의(closed authoritarian regime) 국가인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숙명이다. 사상의 나라 북한에서는 단어, 문장 하나도 그들이 의도하는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저자의 기존 학계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한 소개는 학계의 관련 연구가 보충,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또 다른 차원의 북한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기 전에 저자가 썼던 “김정은 체제-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2012년/한울아카데미 발행)”도 함께 읽어보길 권한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나. 신간 도서안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도서관은 남북관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 3/4분기 중 국내외 신간 도서 15권을 입수하였다.



### < 신간 도서 주요 목록 >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트럼프의 귀환: 위기인가 기회인가	조병제	월요일의 꿈	2024
돌아오지 못한 해병: 채 상병 사건 수사의 진실	구용회	메디치미디어	2024
미국의 핵전략	이만석·함형필	플래닛 미디어	2024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편집	선인	2023
1945년 해방 직후사	정병준	돌베개	2023
남북협력시대 북한특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 및 협력방안 연구	이현주 외	국토연구원	2020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김석진·홍제환	통일연구원	2020

## 3. 예정사항

### 가. 제11차 삼청포럼 개최 (10. 08.)

**제11차 삼청포럼**

# K-방산 vs. NK-방산: 국제분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2024년 10월 8일(화) 19:00~20:3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평화관 1층)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군사학 박사(군사전략) / 군사학 석사(국방전략)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 합참/연합사/육·해·공군·해병대 정책자문위원
-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 전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WMD센터장
- 전 인텔젯지주식회사(민간군사기업) 대표이사

**사전접수 및 문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지원팀  
bee49@kyungnam.ac.kr / 02-3700-0843  
착속 QR링크 신청서 작성  
또는 E-mail로 [이름 / 소속 / 직위 / 연락처] 제출 신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서울특별시 중랑구 북은로 15길 2(삼청동)  
TEL. 02-3700-0700  
E-mail. ifes@kyungnam.ac.kr  
https://ifes.kyungnam.ac.kr

### 나. Fellowship 사업 운영

- 펠로 최종 발표회 개최, 수료식 등

## 4. 안내사항

### 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 모집 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1. 학술지 소개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어 등재학술지를 유지하며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2. 투고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3. 발간일: 3/6/9/12월 말일(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4.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최대 150매 이하)
5. 원고접수: 투고규정(원고 작성 및 제출 요강) 참고하여 작성 후,  
JAMS 온라인투고(<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6. 투고자가 지불하는 기본 게재료 및 심사료는 없으며,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에만 100,000원 게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 국제정치』편집실(02-3700-070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많은 투고 바랍니다.

『한국과 국제정치』는 투고자에게 투고료 및 심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논문을 게재하신 분들께는 논문집을 발송해 드립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 나.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 가입 방법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가입신청서 제출

### 연회비

- 학생회원: 30,000원/일반회원: 50,000원/기관회원: 100,000원
-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 온라인 납부: 경남은행 / 570-07-0011980 / '경남대학교'

### 회원 혜택

- 연구소 도서관 이용
- 연구소 주최 국내외 학술회의 초청
- 연구소 발행 연구물 및 자료 제공
-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 ([www.nknews.org/pro](http://www.nknews.org/pro)) 이용

### 가입 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kyungnam.ac.kr](http://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mailto: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